

재광 장흥 향우회 신임 회장 취임식



재광 장흥 향우회(회장 이영율)은 최근 광주 북구 동구 사론웨딩홀에서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위직령기자 jwvi@kwangju.co.kr

조선대 치과대학 국제학술대회



조선대 치과대학(학장 김수관)이 지난 18~19일 대학 대강당에서 최신 치의학 경향에 대한 2010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선대 치과대학 제공

무주서 만난 이희호·권양숙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 18일 전북 무주를 나란히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0일 이 여사가 경남 해미면 봉화마을을 찾아 서거 1주기를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석묘역을 참배하며 권 여사를 만난 지 한 달 만이다. 무주리조트 티풀호텔에 먼저 도착한 권 여사는 숙소에 여장을 풀고서 1시간 뒤 도착한 이 여사를 밝은 미소로 맞았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진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눴다.

두 사람이 손을 꾹 잡은 채 속소로 향하자 주위 사람들은 속한 눈길로 이를 바라봤다.

이 여사와 권 여사는 이어 티풀호텔 2층에 마련된 한식당에서 1시간 가량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가벼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눴다. 이날 두 전 대통령 부인의 외출은 지난달 무주리조트를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 여사에게 흥나표 무주군수가 반기불축제에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피아니스트 백건우 '한불문화상' 받았다



한불문화상위원회(위원장 박홍신 주불대사)가 주관하는 '제11회 한불문화상' 시상식이 18일 주불한국대사관에서 열렸다.

1999년 창설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불문화상'은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인 및 기관에 수여된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텁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무진중 22회 동창회(회장 박기봉)·장만재 교육감 당선 축하연=22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고속터미널 2층 아이엘리서아. 010-2000-0475.

▲재광 전주 영생고 월례회(회장 이종목)=22일(화) 오후 7시 광산구 월계동 청석골식당. 062-971-7717.

향우회

▲재광 곡성군 총 향우회(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25일(금) 오후 6시 동구 지산동 배네치아 컨벤션.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부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육군 제2하시관학교 113기 정기총회(회장 박해명)=26일(토) 오후 7시 광주 회정동 양운식당. 062-366-0652.

▲지역장애인 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 광주장애인 가족복지회. 062-385-0422.

▲광주YMCA 제4차 오방 아카데미 '글로벌 시대, 민족과 국가, 개인 그리고 지구시민'=오후 6시30분~8시까지 ▲15회(22일,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 동북아의 평화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제 ▲16회(29일, 한완상 전 교육부장관 겸 총리) 우리 시대의 민족문제와 기독교. 010-3613-4285.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메뉴얼, 특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 번역실 운영. 062-431-4788.

모집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학급교실(초·중급반 한글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호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증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복무,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약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 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 있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지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회원 및 전남북지역 지회장 하실 분 환영. 062-223-1357, 010-973-2456

▲충만재가복지센타=방문요양·방문복무·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 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신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원 선발=발로 볼을 차 훌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진월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 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볼쇼이 무용학원 수시모집=발레·제작·방송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무산 태권무예술원=영어·태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미용·양성·호신·경락신법)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종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노래교실. 062-527-7701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거주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을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데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을 모심=노인장기요양보호협회지정기관으로 편성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용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시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른신들을 모심. 061-371-8090.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강진서 천상의 하모니 선보인 美 '뉴콰이어 합창단' 김성수 단장

“미국·유럽에 한국 합창의 아름다움 전합니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도 합창단과 함께 마음속으로 합창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강진군 강진읍교회에서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뉴콰이어(New Choir) 합창단' 김성수 단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음악은 남녀노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관객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음악이다”고 말했다.

한인 성악가 30명 2000년 결성

'뉴콰이어 합창단'은 지난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전문 성악가들과 현지 성악가 등 30명이 모여 결성된 합창단이다. 사업가인 김 단장은 합창단을 끌어들여 후원하고 있다.

이날 강진공연에서 30여 명의 뉴콰이어 합창단원들은 ‘높은 곳을 향하여’, ‘한여름밤 강가에 서’, ‘세 개의 드림: 하이티 민요’, ‘청산에 살리라’ 등 주옥같은 선율을 선사해 갈채를 받았다.

강진공연은 경북 마산과 서울·청송·경기도 분당·제주 등에 이어 갖는 6번째 공연이다.

합창단원들은 국내 공연을 위해 1년 반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구슬땀을 흘렸다.

한인 2세인 김 단장은 강진에 대해 “환경적으로 산과 바다·파란 하늘이 어우러져 땅딸막하지 않고 자연과 동화되는 우리의 음악과도 잘 어울리는 지역이다”고 평했다.

이번에 지휘를 맡은 장 아일린(Eileen Chang) 씨 역시 한인 2세로 캘리포니아 통비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LA칼라합창단 상임지휘자 겸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뉴콰이어 합창단은 캘리포니아 인근 지역인 실리콘밸리·산호세·발리aloft 지역에서 매년 여

름과 크리스마스 기간에 연 2회 정기공연을 펼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 합창지휘협회(ACDA) 서부지부 초청공연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초청공연도 가지면서 미국 음악사회에 한국음악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서울·제주 등 이어 6번째 공연

김 단장은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지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편곡한 ‘새아새아 파랑새아’, ‘강강술래’ 등의 한국음악을 알릴 계획이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순회공연도 함께 기획해 활동경력을 점차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암투병·부친 죽음 등 인생사 고통

'삶의 핏빛 고백' 시로 엮어 내다

순천고 교사 김혜련 시인

젊은 시인이 투병생활과 부친의 죽음을 이라는 인생사의 커다란 고통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쓴 이색 삶의 핏빛 고백을 시집으로 끌어 화제다.

비련의 주인공은 순천고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김혜련(44·사진) 시인. 김씨는 지난해 시집을 낼 계획이었으나 담당암이라는 병마로 인한 투병생활로 시집 발간을 늦춰야 했고, 엊그제 데덮친격으로 올해 초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으나 최근 시집을 내는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유고 시집을 내는 마음으로 이 시집을 끌어냈다”라고 고백했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

(한솔 폐념)을 출간했다. 특히 김씨의 이번 시집은 2010 전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김씨는 2000년 5월 월간 '문화21'

로 등단,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 첫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